

#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

## 1. 기본정보

|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이름   | 이무*              | 학번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파견국가 | 캐나다              | 파견도시 | 킬로나 Kelowna               |
| 파견대학 | Okanagan College | 기간   | 2017. 1. 22(일) ~ 2. 12(일) |

## 2. 파견대학, 수업 및 Activity

| 구분       | 결과보고(서술형)  |
|----------|--|
| 파견대학     | Okanagan College는 밴쿠버에서 1시간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. 대학 자체 크기는 크지 않아서 수업 교실 찾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으며, 도서관, 학교식당, 체육관 등 편의시설도 다 갖추고 있다. 이 곳 학생들은 캐나다 학생도 있고, 다른 나라에서 어학연수 온 학생들도 있으며, 모두 자유롭고 활발한 분위기를 갖고 있다. 이 곳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이며, 도서관에는 항상 사람이 넘쳐난다.   |
| 수업       | 수업내용, 수업방법, 분반여부, 강사, 과제,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.<br><br>분반은 따로 하지 않았고 순천향대 학생들 끼리 수업을 들었다. 수업 내용은 전반적으로 캐나다에 관해 배우는 수업이었고, 수업방법은 보통 선생님이 설명해주고, 파트너와 대화를 하는 시간이 많았다.<br>주제를 하나 정하고 난 뒤 PPT발표가 final test 이어서 수업 중반 이후부터는 ppt 만드는 방법과, ppt 발표 시 사용되는 표현 어구 등을 배웠다.<br>월 수 금은 오전에 수업하고, 오후에 activity 활동하고, 화 목은 오전 오후 수업을 진행하였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Activity |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.<br>- Activity 종류, 내용, 준비물, 추가비용 등<br>Activity 종류<br>winery tour : 킬로나는 와인생산지로 유명한 도시이다. 그래서 winery 투어를 갔는데 겨울이어서 온통 눈 밖에 없어서, 넓은 별판만 구경했고 와인 시음을 하였다. 여기서 와인을 사도 좋으며, 아이스와인을 사는 것을 권한다.<br>balling : 원래는 수영장을 가기로 되어있었으나, 수영복이 없던 관계로 볼링을 치게 되었다. 동생들과 내기를 하면서 볼링을 쳐서 재미있었다.<br>ice skating : 스케이트를 처음 타보는 거라 걱정됐지만, 금방 익혀 재미있게 |

|  |   |
|--|---|
|  | <p>잘 탔다. 야외서 타서 바람이 많이 불어 추워서 고생했다.</p> <p>shopping excursion : 킬로나에서 제일 큰 orchard park mal에서 쇼핑을 하였는데 딱히 사고 싶은 것이 없어 아이쇼핑만 했다.</p> <p>ice hockey game : 아이스하키 경기를 직관하였는데, 한국에서는 관심 없는 스포츠였지만, 직접 보니 매우 재미있었고 생동감이 넘쳤다. 또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.</p> <p>ski and snowboard : 저는 스키를 탔는데, 일단 한국스키장과는 완전 다른 것 같다. 진짜 눈이 부드럽고 스키 탈 때 얼음 걸리는 것도 없었다.</p> <p>캐나다 와서 스키를 탈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운 활동이었다.</p> <p>curling : 한국에서는 티비로만 보던 것이었지만, 직접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힘든 스포츠였다. 특히 바닥 쓸 때 힘들었다. 새로운 스포츠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.</p> |
|--|---|

### 3. 생활전반

| 구분 | 결과보고(서술형)   |
|----|---|
| 날씨 | <p>현지 기후 및 유의점</p> <p>첫 주는 겨울인데도 한국보다 따뜻하였지만, 둘째 주부터는 눈이 많이 내려서 꽤 추워졌다. 그리고 해가 많이 보기 힘들었고, 구름이 많은 날이 많았다.</p>   |
| 안전 | <p>현지 안전 상황</p> <p>매우 안전하다. 밤늦게 돌아다녀도 크게 위험하지 않았다.</p>  |
| 숙소 | <p>학교기숙사( ) 홈스테이 ( o ) 외부 숙소( ) 기타( )</p> <p>숙소 시설, 분위기, 규칙,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집은 2층 집이었고, 내가 쓰던 방은 아늑하고 침대도 좋았다. 집에는 홈스테이 엄마, 아빠랑 다른 나라 친구 1명과 생활했으며, 불편함을 느끼거나 힘든점은 없었다. 같이 저녁을 먹을 때 이야기도 하면서 좋았다. 학교와의 거리는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어, 학교 다니는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. 집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있어서 조금 불편했다. 규칙은 딱히 없었고 정말 내 집처럼 편했다.</p> |
| 식사 | <p>학교식당( o ) 홈스테이 ( o ) 외부 식당 ( o ) 기타( )</p> <p>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,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학교식당은 페스트 푸드를 팔았고, 점심은 항상 홈스테이 엄마께서 샌드위치를 챙겨주셨고, 저녁은 홈스테이 아빠가 이탈리아분이어서 한국 돌아</p>   |

|    |  |
|----|--|
|    | 을 때까지 이탈리아 음식만 먹었다. 가끔 다른 것을 먹고 싶을 때 학교식당에서 사먹거나 컵라면을 먹었다. 외부 식당도 주말이나 저녁때 가곤했다. 그리고 수요일은 워 데이여서 PUP에 가서 치킨을 싼 가격에 많이 먹었다.   |
| 교통 | <p>통학방법, 시내교통 관련</p> <p>아침 등교할 때는 같이 홈스테이에 살고 있는 친구가 차가 있어서 함께 등교하였고, 집에 갈 때나 놀러 다닐 때에는 버스를 이용하였다. 버스 노선도 어렵지 않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,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는 버스 스케줄이 적어 버스 시간을 잘 보고 이동해야 한다.</p> |

#### 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:원

※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.

| 항목          | 비용           | 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| 약 1,500,000원 | 출국 전 사전 납부     |
| 개인 경비       | 600CAD       | 기념품, 식비, 등등    |
| 합계          | 600CAD       |                |

#### 5. 출국 전 준비사항

|   |
|---|
| <p>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,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</p> <p>캐나다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해가는 것이 좋고, 3주 동안 공부보다는 캐나다 여행을 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왕 간 김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곳을 둘러보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그렇지만 킬로나는 휴양지 느낌에 작은 도시여서 유명 명소가 많지 않고, winery가 유명하므로 꼭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. 그리고 아끼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 모두 경험하기를 바랍니다. 컵라면이나 햇반을 가져가면 좋습니다. 동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동전지갑을 준비하면 편리하고, 밖에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로밍보다는 유심을 한국에서 사가는 것이 편하다. 캐나다에는 팁 문화가 있고 세금을 따로 더 내야하는 점도 숙지해야합니다.</p> |
|---|

## 6. 본인 소감 및 평가

본인의 경험담, 느낀점,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.

3주라는 시간이 영어를 배우기에는 부족하다.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직접 캐나다 가정에 생활을 하면서 캐나다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. 킬로나는 한국 사람이 적어서 항상 영어를 쓸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좋았고, 같이 사는 홈스테이 친구 덕분에 같이 운동도하고, 학교도 같이 가고, 새로운 친구도 만났다. 영어, 문화 등 교육적인 면에서도 배울 점들이 많았지만 무엇보다 함께 간 12명의 학생 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다. 모두가 다른 학과, 다른 학년이지만 3주 동안 많은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 좋았다. 함께 간 학생들 뿐 만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만 한다면 오키나와 간 대학 학생들 등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많다. 그래서 캐나다 에 가게 된다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. 그리고 홈스테이에서 지내면서 또 다른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하였고, 3주 동안 좋은 홈스테이 가정을 만나서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다 왔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또 가고 싶다.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, 킬로나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고,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. 킬로나를 가게 된다면 겨울보다는 여름에 가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고, 마지막으로 단기어학연수를 가는 것을 생각해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꼭 신청해서 다녀왔으면 좋겠으며, 분명히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

학교 앞



스키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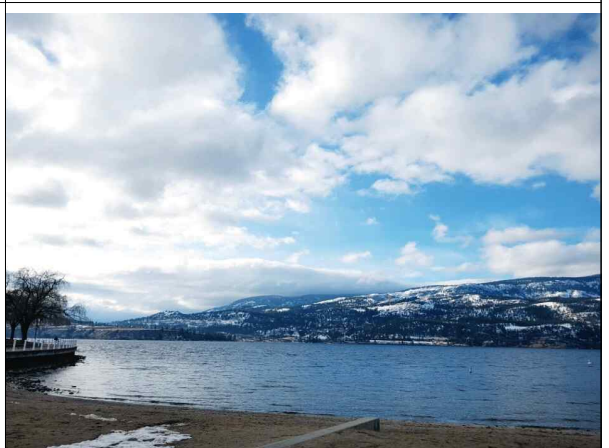
WING DAY 맞아 치킨 먹으러 PUP



홈스테이 친구와 한국 레스토랑



아이스하키 경기



Okanagan 호수